

신기술 무장 한국기업 500개사 세계를 홀리다

2천여 기업 기술 경연 성료

우주테크·푸드테크·AI 등
첨단기술 트렌드 총집합
대·중견·중소기업들 활약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2'가 사흘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7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2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돌아온 CES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약제 속에서도 국내외 2,100여 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열띤 기술 경연을 펼쳤다.

올해 CES는 오미크론의 확산 여파로 글로벌 대기업들이 줄줄이 현장 불참 선언을 한 데 이어 행사 기간도 하루 앞당겨 단축됐다. 전체 참여 기업 규모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20년 4,500여 개사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게다가 CES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 기업은 미중 간 무역 분쟁 등으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이 같은 위기 속에 오히려 한국 기업들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00개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향했다. 전체 참여 기업 네다섯 곳 가운데 하나는 한국 기업이라는 이야기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KICTA)에 따르면 CES 2022 국가별 참여 기업 규모는 개최국인 미국이 1,300여 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이 바로 한국이었다.

이번에 대거 참여한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국내외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존재감을



1 CES 2022의 인기 스타로 떠오른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 2 솔트룩스가 CES 2022에서 공개한 메타휴먼 '에린(ERIN)'이 부스에서 홍보와 주력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빛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두산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기업 외에 중견·중소기업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 아울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한국관'을 열어 83개 스타트업들을 소개했고, 서울시도 25개 스타트업과 함께 '서울관'을 꾸리는 등 국내 스타트업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한중희 삼성전자 부회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등 국내 주요 기업 CEO가 현장에 직접 찾아오는가 하면, 양향자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의 5

명도 CES에 참석해 여러 기업 부스를 방문했다.

올해 CES 2022에서는 우주테크를 비롯해 푸드테크와 친환경, 인공지능(AI), 로봇, 메타버스 등이 핵심적인 정점으로 부각됐다. CES 주최 측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올해 CES를 통해 다양한 기술의 성장 로드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스타트업과 우주테크, 푸드테크 등 신기술의 미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주테크'가 CES에 정식 전시분야로 신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주 산업 관련 기술 기업들이 올해 처음 CES에 등

장한 만큼 우주테크에도 큰 관심이 쏠렸다. 특히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 야외에 마련된 미국 우주항공기업 '시에라 스페이스(Sierra Space)'의 부스 앞에는 행사 기간 동안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실제 비행선과 똑같이 생긴 우주 비행선 모형 '드림 체이서'가 전시돼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푸드테크도 이번엔 새롭게 추가된 카테고리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미국 '마이코테크놀로지'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버섯과 곰팡이균을 활용한 발효 기술을 통해 유제품과 육류 대체품을 개발했다.

또 미국에 본사를 둔 '베어 로보틱스'

는 별도 부스를 마련해 식음료를 서빙하는 AI 자율주행 로봇을 선보였다.

아울러 국내 스타트업 '비온드히니컴'은 AI 셰프 솔루션을 공개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전문 요리사의 조리법을 AI 로봇이 분자 단위까지 분석해 손맛까지 그대로 재현해낸 것이다.

CTA는 전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가 2027년 약 3,420억 달러(한화 약 410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푸드테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앞으로 CES에서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로봇들의 활약도 대단했다. 영국 로봇기업인 엔지니어드 아츠의 AI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는 물론, 현대차그룹

의 4족 보행 로봇 '스팟'과 2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 두산로보틱스의 사과 따는 로봇과 드럼 연주하는 로봇 등 CES를 방문한 로봇들의 인기는 어디서나 하늘을 찔렀다.

이 밖에 나날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현대차그룹은 로보틱스(로봇공학)와 메타버스를 결합한 '메타모빌리티'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고, 일본 전자업체 소니는 전기자동차 시장 진출 선언과 함께 전기차 자회사 '소니 모빌리티' 설립을 깜짝 발표하기도 했다.

/시타임스 제공·정리=이연수 기자

“역시 남다르네”

삼성 지원 스타트업, CES 혁신상 22개 휩쓸어

삼성전자가 육성한 스타트업들이 'CES 2022'의 주역들로 떠올랐다. 이들 기업은 'CES 2022 혁신상'을 휩쓸며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삼성전자는 라스베이거스 '베네치안 엑스포' 내 스타트업 전시관인 '유레카 파크(Eureka Park)'에 'C랩 전시관'을 꾸렸다. C랩은 삼성전자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C랩 전시관에 임직원 대상 사내 프로그램인 'C랩 인사이트' 우수 과제 4개사와 사외 스타트업 대상 'C랩 아웃사이드'로 지원한 9개사를 소개했다.

삼성전자가 이번 'CES 2022'에서 선보인 C랩 인사이트 4개 과제는 현재 사내에서 육성하고 있는 40개 과제 가운데 혁신성과 글로벌 시장성, 완성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과제다.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스마트 기기 사용 습관을 길러주는 인공지능(AI) 솔루션 '필로토'를 비롯해 ▲온라인 시험 AI 관리 감독 서비스 '프로바'

▲영아 사시 조기 발견 솔루션 '이노비전' ▲LED 가이드로 쉽게 학습하는 스마트 전자기타 '젼스타' 등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C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삼성전자가 직접 키운 5개의 스타트업과 대구·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육성한 4개 스타트업도 함께 소개됐다. 이 외 C랩 인사이트에서 분사해 창업한 9개 스타트업도 독자적으로 전시관을 꾸려 CES 2022에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C랩 스타트업들은 'CES 2022 혁신상' 22개(최고 혁신상 1개·혁신상 21개)를 수상하며 C랩 역사상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다. 반려견 신원 확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한 '펫나우'는 소프트웨어·모바일 앱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디지털·에바·롤루랩이 2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고, 버시스·비트센스·링크페이스·블루필·루플·프링커 코리아 등도 혁신상을 받았다. /시타임스 제공·정리=이연수 기자



펫나우 앱은 CES 2022의 소프트웨어·모바일 앱 부문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펫나우 제공

파루인쇄전자, 브랜드 가치 높였다

전기차 냉각수히터 등 공개
해외 관람객들에 좋은 반응

파루인쇄전자가 'CES 2022'에서 인쇄전자 분야 선두기업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파루인쇄전자는 이번 행사에 참가해 인쇄전자 기술에 대한 전시와 함께 자체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을 소개했고, 관람객들로부터 제품의 우수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더불어 파루인쇄전자는 현장을 찾은 주요 해외 바이어, 유통사들과의 수출상담도 성과를 냈다.

파루인쇄전자는 이번 CES에서 인쇄 필름히터(냉장고용 히터)와 전기차 냉각수히터, 반도체 웨이퍼(반도체 원료) 히터 등을 선보였다. 인쇄전자기술을 적용



잉크의 전기담요와 북부 온열필름히터에 대한 관람객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한 인쇄 필름히터는 폴리메탈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합성수지에 인쇄해 만든 면(面) 형태의 전기발열체다.

전압이 공급되면 필름에 인쇄된 은나노

잉크 패턴을 타고 흐르는 전류가 열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열이 발생한다. 20~80도 수준의 발열능을 자랑한다. 파루인쇄전자는 이같은 기술의 가치에 대해 조

명했다. 또한 인쇄 필름히터 기술은 필요한 온도 따라 회로와 잉크를 선정해 냉방과 의 재상히터, 체온유지용 전기담요 및 전기방석, 자동차의 유리 및 미러의 성에 제거 히터, 배터히터 등에 적용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잉크(INKO)의 온열 제품이다. 파루인쇄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서 파루인쇄전자 기술로 제작된 잉크 온열제품인 전기담요, 북부 온열필름히터 등의 제품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고 한다. 관람객들은 발열 의류와 의류 부착형 히터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파루인쇄전자는 세계 인쇄전자 기술 분야의 선두기업으로서 면모를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임채민 파루인쇄전자 부장은 "파루인쇄전자 기술과 해당 기술이 적용된 잉크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관람객들의 반응을 신제품에 반영해 향후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타임스 제공·정리=이연수 기자

AI코칭으로 홀인원... '골린이' 들 주목

모아이스, '골프픽스' 선배...스윙 분석·실시간 피드백

'CES 2022'에 참가한 ㈜모아이스(MOAIIS)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골프 코칭 앱 '골프픽스(Golf Fix)'를 선보였다. 모아이스는 '모션+에이아이+스포츠'의 약자로 지난 2019년에 AI 전문가들이 모여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골프를 즐기는 연령대가 다양해지면서 MZ 세대 사이에서 골프가 여가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명 '골린이(골프+어린이)'가 빠르게 늘어나며 골프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CES 2022 전시장에 등장한 '골프픽스' 앱에 많은 눈길이 쏠렸다. 모아이스 부스를 방문한 골프픽스 앱 서비스를 살펴본 국내외 관람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모아이스가 CES에서 선보인 '골프픽스' 앱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신의 스윙을 직접 촬영하거나 영상을 불러오면, 단 몇 초 만에 스윙을 자동 분석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서비스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45가지 이상의 골프 스윙 관련 문제점을 자동으로 진단해준다.

AI는 스윙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최적의 유튜브 레슨 콘텐츠를 추천해주기도 한다. 프로 스윙과 비교해주는 기능도 있다. 집중 연습 기능을 이용하면 AI 코치가 사용자의 스윙에 대해 바로바로 문제점을 파악해 지도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효과적으로 스윙 연습을 할 수 있다.



이용근 모아이스 대표가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에게 인공지능(AI) 기반 골프 코칭 앱 골프픽스(Golf Fix)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용근 모아이스 대표는 "실제 가장 큰 골프 시장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이라며 "상용화된 서비스의 영어 버전 출시와 함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 "현재는 시스템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향후 고도화된 골프 코칭 기능을 추가하고 사용자를 확대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시타임스 제공·정리=이연수 기자